

겨레의 마음속에 빛나는 영상



해방된 조국땅에서 뜻깊은 개선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페어린 항일무장투쟁으로 나라를 해방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주석께서는 주체 34(1945)년 10월 14일 인민들과 감격적인 첫 상봉을 하시였다. 이 사진의 깊고 품위 있는 모습은 해방된 조국땅에서 우리 겨레가 처음으로 뵈온 주석의 모습이었다.

당시의 신문 『평양민보』는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겨레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펴력하였다.

『…조선동포가 가장 승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장군께서 그 품성을 용자로 한번 나타내 아니 장내는 열광적 환호로 숨막힐듯 되고 거

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리없는 음울을 들었다.

…군중에게 준 감동은 강철과 같은것이어서 산야가 떠나갈듯 한 환호성가운데 〈이 사람과 같이 싸우고 같이 죽으리라〉는 사람들의 결의는 눈에 보일듯이 고조되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해방된 조국인민들에게 조국개선의 인사를 하시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전국사업에 이바지하자고 하시던 수령님의 그날의 절절한 애국호소는 이 못 잊을 사진과 더불어 오늘도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인터넷 『참소리』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흠토하는 글이 실렸다.

『위인을 알아야 한다. 민족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사태와 매판, 득재가 판을 치는 이 땅, 도덕과 양심이 사라진 이 땅에서 위인을 찾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 어떤 이는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어떤 이는 멀리 서 두리번거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세계 최고의 위인이 있다. 좌절할 필요도 멀리 헤이에서 헤 멸 필요도 없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위인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절세의 위인 김일성주석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드높이 표시하는 위인, 세계가 칭송하는 위인 김일성주석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위인들이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진보적인 철학사상을 창시하는 것이다. 김일성주석은 일제강점기

본사기자

최고이다.

주체사상이 있어 우리 민족은 세계에 유품가는 민족이 되었다.

김일성주석은 10대의 어린시절 항일운동에 나서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전세계 그 어떤 위인도 따를 수 없는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김일성주석은 국도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종을 들고 일제,

미제와 맞서 싸워이기

심으로써 우리 민족에게는 국을 찾아주고 자주권을 지켜주시

였으며 세계인류에게는 자주

대에 대한 승리의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김일성주석의 수많은 업적들은 우리 민족과 세계인류의 기

역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이처럼 김일성주석은 세계인

류의 존경을 받는 위인 가운데서도 최고의 위인이다.

김일성주석과 같은 위인이 있

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더 할 수 없는 영광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

민족의 위대성이기도 하다.』

본사기자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존중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손뼉을 놓고 있었다. 약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아 수도시

민들을 비롯한 온 나라인민

들은 영영 마실 수 없게 된 것

이 아닌가고 저마다 걱정하였다.

하여 과학자, 기술자, 로

동자들이 떨쳐나섰다. 그들

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로

쳐주신대로 비저항CT탐사

를 하여 원래 위치에서 일

마간 떨어진 곳에 자리를 정

놓았는데 그 옆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여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소문

세계 최고의 위인

파 혁명은 자기 신념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야 한다는 진리를 출발점으로 하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이것을 토대로 일제와 미제 두 강대국과 맞서 싸워이기시였으며 군, 당, 국가를 건설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에 향진시키시였다.

지금 전세계에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무어져 해마다 주체사상과 관련한 토론회, 강연회, 국제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김일성주석은 일제강점기

본사기자

는 막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손뼉을 놓고 있었다. 약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아 수도시

민들을 비롯한 온 나라인민

들은 영영 마실 수 없게 된 것

이 아닌가고 저마다 걱정하였다.

하여 과학자, 기술자, 로

동자들이 떨쳐나섰다. 그들

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로

쳐주신대로 비저항CT탐사

를 하여 원래 위치에서 일

마간 떨어진 곳에 자리를 정

놓았는데 그 옆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여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소문

강서약수가 다시 솟구치기까지

여기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지진에 의해 강서약수의 샘줄기가 막히게 되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을 위해 강서약수를 기어이 찾아내도록 긴급대책을 세워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미 있던 샘줄기에서 약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대답하게 비저항CT탐사를 하여보고 다른 곳에 추공을 할 때 대한 묘리도 밟혀주었다.

생각해보면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많은 자금을 들여 강서약수공장을 현대적인 약수생산기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고 지난해에는 몸수공장에 찾아오시여 약수생산과 그 공급에서 나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모두가 떨쳐나 사라져버린 약수의 샘줄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샘줄기를 찾을 수 없었다.

천길 땅속의 조화로 이루어진 샘줄기를 다시 찾는다

이전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하고 시추를 시작하였다. 가

습을 조이는 날과 날, 순간

순간들이 흘렀다. 약수가 사

라진 때로부터 60일, 드디어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을

위해 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을 위해 강서약수를

찾아내도록 긴급대책을 세워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미 있던 샘

줄기에서 약수가 나오지 않

는 경우에는 대답하게 비저

항CT탐사를 하여보고 다른

곳에 추공을 할 때 대한 묘리

도 밟혀주었다.

생각해보면 인민들의 건

강서약수를 찾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샘줄기를 찾을 수

없었다.

천길 땅속의 조화로 이루

어진 샘줄기를 다시 찾는다

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그런데 약수의 샘줄기가 막혔으니 장군님의 심정

인민들을 위해 강서약수를

찾아오시였다.

생각해보면 인민들의 건

강서약수를 찾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샘줄기를 찾을 수

없었다.

천길 땅속의 조화로 이루

어진 샘줄기를 다시 찾는다

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그리고 약수의 샘줄기가

막혔으니 장군님의 심정

인민들을 위해 강서약수를

찾아오시였다.

생각해보면 인민들의 건

강서약수를 찾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샘줄기를 찾을 수

없었다.

천길 땅속의 조화로 이루

어진 샘줄기를 다시 찾는다

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그리고 약수의 샘줄기가

막혔으니 장군님의 심정

인민들을 위해 강서약수를

찾아오시였다.

생각해보면 인민들의 건

강서약수를 찾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샘줄기를 찾을 수

없었다.

천길 땅속의 조화로 이루

어진 샘줄기를 다시 찾는다

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그리고 약수의 샘줄기가

막혔으니 장군님의 심정

인민들을 위해 강서약수를

찾아오시였다.

생각해보면 인민들의 건

강서약수를 찾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샘줄기를 찾을 수

없었다.

천길 땅속의 조화로 이루

어진 샘줄기를 다시 찾는다

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그리고 약수의 샘줄기가

막혔으니 장군님의 심정

인민들을 위해 강서약수를

찾아오시였다.

생각해보면 인민들의 건

통일의 길에 새겨진 숭고한 자욱

조국통일의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일찍부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토고를 바쳐오시였다.

주체61(1972)년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민족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고 우리 겨레의 통일의지를 전세계에 표시한 역사적사변이었다.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 진보적인 유도 이를 열렬히 지지 환영하였으며 삼천리 강도는 통일의 열망으로 끓어번졌다.

그러나 남조선의 당국자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결의 3대 원칙에 동의하고 그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었지만 공동성명을 밟았고 돌아온 자마자 《중이 장 한장에다 운명을 내맡길수 없다》느니, 《미군의 남조선 주둔은 걸친 수록 좋다》느니 하면서 공동성명에 배치되는 밀언들을 공포연히 하고있었다. 또한 그들은 공화국에 대한 비방증상을 증지하지 않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조성된 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민족분열령구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원칙을 고수하며 통일운동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주체61(1972)년 7월 14일 역사적인 토작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를 발표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역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가 가지는 대단한 역사적의의를 밝히고 공동성명자체를 뒤집어엎으려는 분별주의자들의 속심을 깨밝히시었으며 조국통일3대원칙의 정당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

최근 북남사이에는 금강산지구의 남측재산 정리를 위한 접촉이 여러차례 진행되었다.

금강산지구의 남측재산 정리사업은 우리의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따라 금강산에 있는 남측기업들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영리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동포에적인 조치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일방적인 관광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있는 남측기업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상기회를 마련하고 남측기업들의 의사에 따라 재산처리가 될수 있게 여리가지 선택방안도 제시해주면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재산정리사업을 그 무슨 《합의위반》과 《재산권침해》로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악랄하게 방해하였으며 나중에는 여리가지 오그랑수를 쓰면서 보물적인 자연전술에 매달리였다.

우리측은 기일을 거듭 연장하면서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였으나 남조선당국이 계속 휘방을 놓는 조건에서 이미 예고한대로 지난 7월 29일 부터 불우리 법에 따라 남측재산들에 대한 법적처분에로 넘어간다는것과 남측기업들이 3주일안에 립회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것으로 인정하고 엄정처분해야 될것이라는것을 통고하였다.

이때에도 우리측은 휘회에 응해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법적처분의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재산처리방법을 선택할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었다.

피폐당은 우리가 준 이 마지막기회마저 무시하였을뿐 아니라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무슨 《제소》나 뛰어나면서 도전적으로 나왔다.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우리와 현대사의 합의를 패탄시킨 장본인이고 남측기업들의 재산보호를 위한 우리의 인내와 성의를 무지막지하게 차버린 주범인 피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이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순수한 사업으로부터 금강산관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의 음흉한 속심과 비열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오늘과 같은 사태가 빚어지게 된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오늘의 이 현실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유감》이나, 《법적, 외교적대응》이니 하는 망발을 일삼으며 계속 대결에 매달리고 있다.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은 물론 북이 입은 손실도 엄청나다.

거기에는 겨레의 환희와 통일열기가 치닫처럼 금강산이 인적물건 적막강산으로 되고 그토록 금강산을 재개할수 없다고 생떼를 부리는 조건에서 북은 2009년 8월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특별담화까지 해주었다.

그럼에도 남조선당국은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인정할수 없다니 뛰어나면서 지나해 2월의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

바로 이러한 때 판문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판문각로대에까지 나가시여 북남적십자예비회담과 관련하여 물려든 남측인원들과 어기저기 삼엄하게 늘어서신 미제침략군들을 봄비는 회의장구역을 굽어보시였다.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과 강토가 두동강이 나고 겨레에게 긴긴 세월 분별의 고통과 비열의 설움을 강요하고있는 원한서린 현장을 돌려보시는 장군님의 마음은 파연 어찌하시였으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이렇듯 판문점에 통일령도의 숭고한 한마디를 새기시였다.

이로부터 두해 후의 7월 어느 날에 그이께서는 또다시 판문점을 찾으시여 점도록 남녘땅을 굽어보시며 천만군의 무게가 실린 어조로 조국을 빼리 통일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주체66(1977)년 7월초 어느날에도 개성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기까지 왔다가 판문점에 들리지 않으면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일군들을 판문점으로 이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판문각로대로 나가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이날 통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앞당겨오기 위하여 적국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는 이곳에 오면 하루빨리 분계선을 없애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굳어진다고, 그래서 나는 분계선지구에 나올 때마다 판문점에 들리군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판문점을 떠나시기에 앞서 저으기 흥분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분발하여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자고 절실히 말씀하시였다.

비단 판문점에서만이 아니었다.

주체62(1973)년 8월 어느날 강원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금강산을 돌아보시였다.

금강산의 어느 한 마루에 오르시여 자작한 운무속에 묻혀있는 남녘땅을 바라보시며 장군님께서는 오늘 금강산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경치를 저 남녘땅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형제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언제인가 아시아의 평화

기치밀에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친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벌써 절반이나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

싸리나무 한가지는 꺾기 쉽지만 아름드리나무는 꺾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녀성들이 남조선보수세력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짓부서버리기 위한 국토평생에 파감히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그렇다. 북과 남, 해외 우리녀성들은 통일의 절반蛩을 떠맡고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녀성들이 가정의 행복과 자식들의 영원한 미래를 담보하는 국토평생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설 때 통일은 그 만큼 앞당겨지게 된다.

녀성들이 6.15공동선언의

김해숙

기치밀에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친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벌써 절반이나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

싸리나무 한가지는 꺾기 쉽지만 아름드리나무는 꺾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녀성들이 남조선보수세력의 반

공화국대결책동을 짓부서버

리기 위한 국토평생에 파감

히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녀성들은 겨레앞에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

고 통일에 국의 길에서 뚜렷

한 삶의 자율을 넘기는 자랑

스러운 민족의 꽃으로 더욱 활짝 피여나야 한다.

조선그리스도교맹

김해숙

기치밀에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친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벌써 절반이나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

싸리나무 한가지는 꺾기 쉽지만 아름드리나무는 꺾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녀성들이 남조선보수세력의 반

공화국대결책동을 짓부서버

리기 위한 국토평생에 파감

히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녀성들은 겨레앞에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

고 통일에 국의 길에서 뚜렷

한 삶의 자율을 넘기는 자랑

스러운 민족의 꽃으로 더욱 활짝 피여나야 한다.

조선그리스도교맹

김해숙

기치밀에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친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벌써 절반이나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

싸리나무 한가지는 꺾기 쉽지만 아름드리나무는 꺾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녀성들이 남조선보수세력의 반

공화국대결책동을 짓부서버

리기 위한 국토평생에 파감

히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녀성들은 겨레앞에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

고 통일에 국의 길에서 뚜렷

한 삶의 자율을 넘기는 자랑

스러운 민족의 꽃으로 더욱 활짝 피여나야 한다.

조선그리스도교맹

김해숙

기치밀에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친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벌써 절반이나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

싸리나무 한가지는 꺾기 쉽지만 아름드리나무는 꺾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녀성들이 남조선보수세력의 반

공화국대결책동을 짓부서버

리기 위한 국토평생에 파감

히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녀성들은 겨레앞에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

고 통일에 국의 길에서 뚜렷

한 삶의 자율을 넘기는 자랑

스러운 민족의 꽃으로 더욱 활짝 피여나야 한다.

조선그리스도교맹

김해숙

기치밀에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친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벌써 절반이나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

싸리나무 한가지는 꺾기 쉽지만 아름드리나무는 꺾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녀성들이 남조선보수세력의 반

공화국대결책동을 짓부서버

리기 위한 국토평생에 파감

히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녀성들은 겨레앞에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

고 통일에 국의 길에서 뚜렷

한 삶의 자율을 넘기는 자랑

스러운 민족의 꽃으로 더욱 활짝 피여나야 한다.

조선그리스도교맹

김해숙

기치밀에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친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벌써 절반이나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

싸리나무 한가지는 꺾기 쉽지만 아름드리나무는 꺾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녀성들이 남조선보수세력의 반

공화국대결책동을 짓부서버

리기 위한 국토평생에 파감

히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녀성들은 겨레앞에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

고 통일에 국의 길에서 뚜렷

한 삶의 자율을 넘기는 자랑

스러운 민족의 꽃으로 더욱 활짝 피여나야 한다.

조선그리스도교맹

김해숙</p

인류의 기원과 문명, 발전은 민물에 생명을 주고 자양분으로 되는 물과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세계 5대 문명의 하나인 대동강 문화를 꽂고온 조선의 대동강 유역은 인류의 발상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이다.

흔히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자기를 낳아주고 키운 어머니에 비유한다. 우리 민족은 맑은 대동강물을 마시며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창조하여 왔다. 대동강은 우리 민족의 첫줄기, 어머니강이다.

우리 민족의 냉의 흐름과 같은 대동강을 흐려보려고 수수천년 외적의 침입이 그칠 새 없었지만 이 나라인민은 단군민족의 어머니강, 대동강을 굳건히 지켜냈다.

우리 민족에 대한 미국의 침략자들도 대동강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인 1866년 미국침략선 『서먼』호가 대동강을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민족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선보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바로 100년 전인 1856년 6월 강원도 통천에서 풍랑만난 4명의 외국인들을 구원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미국인들이었다.

그 조난자들을 구원해주고 인도주의적으로 대해준 조선인민에게 미국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총포로 중무장한 무력을 들이밀어 침략의 불을 지르는 것으로 대답한 것이다.

력대 혁사가들이나 문학가들은 인류사의 크고 작은 침략전쟁을 불에 비기여 표현하여 왔다.

원천이 없으면 존재 할수도 확산될수도 없기 위해 자가 생존을 위하여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며 무자비하게 태워버리는 불의 성질을 넘두에 두고 그렇게 서술했을 것이다.

물론 불의 발견이 평보로 걸던 인간을 금보로 달리게 하였다는 말도 있듯이 불도 물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왔다.

대동강이 전하는 이야기

하지만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불의 성격이 달라진다. 디아나미트를 발명한 노벨은 자기의 창조물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수단으로 리용되는것이 가슴아파 모든 유산을 인류의 평화를 위해 셔달라고 유언하였고 라디움의 발견으로 20세기 원자의 시대를 열어놓은 큐리부인은 그 발명품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침략과 전쟁의 불을 즐겨 한다는 것은 그들의 전국력사가 말해준다.

불로 인디안들을 멸살하고 나라라는 것을 세웠고 제1차 세계대전이 전까지의 기간에 매해 침략을 비롯하여 백십여 차례의 침략전쟁과 쿠고작은 8 900여회의 전투로 자기 영토를 10배 이상으로 넓히고 20세기와 21세기 자가의 역사를 침략전쟁사로 기록한 미국이다.

마치도 불은 미국을 잉태하고 자라운 뿌리인 듯싶다.

미국은 『서먼』호의 포문을 열어 아메리카를 일떠세우던 침략전쟁의 불을 우리 민족에게 들씌웠다.

민족의 존엄을 유린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는 우리 민족은 침략자들과의 성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김 일성 주석의 중조할아버지인 김일성은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를 기이며 청산하기 위해 개선에서 북, 남, 해외가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기로 합의한 공동학술토론회를 남측당국이 부당한 『5·24조치』를 냄으로써 불행히 끝났다.

오늘무례하게 불행하며 날뛰던 침략자들은 『서먼』호와 함께 대동강물속에 수장되었다.

중무장한 근대적인 전투함선이 수장된 것은 미국의 해외침략사에서 처음으로 있은 커다란 사건이었다.

『서먼』호 침입 사건에서 응당 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미국은 이를 구실로 그해 12월에는 『워축』호를, 1868년 3월에는 『쉐난도아』호를 대동강에 들이밀었으

며 1871년에는 대규모의 침략군과 함대를 편성하여 우리 나라를 침략하였으나 역시 『서먼』호와 같은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서먼』호의 침입은 단순히 우발적인 해적행위가 아니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를 예속시키기 위한 서막이었고 우리 민족에 대한 미 국의 첫 『선전포고』였다.

19세기 미국침략선 『서먼』호와 그 뒤를 이은 침략자들의 말로는 불을 줄이는자는 제자 지른 불에 태죽기 마련이며 침략을 비롯하여 백십여 차례의 침략전쟁과 쿠고작은 8 900여회의 전투로 자기 영토를 10배 이상으로 넓히고 20세기와 21세기 자가의 역사를 침략전쟁사로 기록한 미국이다.

미국은 그때에 이것을 빼어 새겼어야 했다.

침략과 략탈을 생리로, 본성으로 하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더욱 오만해졌고 1950년 대에는 이 땅에 침략의 불질을 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북조선』에서는 쓸어도 남을 것이 하나도 없게』하기 위해 78개 도시를 완전히 『지도우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다.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미국이 공화국에 투하한 폭탄은 태평양 전쟁기간 여러 나라들에 투하한 폭탄의 1수와 맞으며 2차대전 시기 도이췰란드에 투하한 폭탄의 수를 끊어가고 있다.

전쟁에서 미국은 우리 민족의 정든 대동강을 불태워보려고 대동강문화를 말살해보려고 악에 반쳐 날뛰었다.

1951년 7월 11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만도 250회 이상에 걸쳐 『B-29』 폭격기를 포함한 연 1만대이상의 미군공중비행들이 평양시에 4 000여개에 달하는 소이란, 취발유동, 시한란 등을 투하하였다. 그 결과 대동강일대의 4 000명의 평화적 주민들이 살해되었으며 2 50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대동강엔 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피가 흘렀다.

아니 침략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맹류가 소용돌이쳤다.

대동강의 도도한 흐름처럼, 억센 격랑처럼, 푸른 기상처럼 이 나라 인민은 반미대결전에 파감히 일떠서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버렸다.

전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렛 드리거가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대상과 싸운 잘못한 전쟁이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미국은 대동강문화를 꽂고온 조선민족에게 잘못 접어들었던 것이다.

물은 이 땅의 어지러움을 씻어주고 흡여안는 포옹력이 있다.

아래로만 흐르는 경순이 있고 바다로 흐르는 지향이 있다.

백길벼랑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고 천년바위도 놓는 강인함이 있으며 사시장철 노래하는 땅만도, 조용히 흐르는 듯 하다가도 노도처럼 사롭치는 격랑이 있다.

민족분열의 수십년 세월 가령 한 전쟁을 겪었고 당시적인 전쟁위협 속에 살아온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온 우리 민족은 대동강의 이 기질을 그대로 닮았다.

하지만 물은 화려한 빛으로 자

기를 나타내려는 교만이 있고 허공으로만 향하는 거만이 있다.

거세게 타오르며 만물을 태워버리려는 탐욕은 있어도 물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나약과 슬며시 꺼져버리는 비겁이 있다.

그런 것으로 하여 물은 물을 이길 수 없다.

200여년간 침략전쟁의 불에 뿌리를 둔 미국이 반만년 친조해온 대동강문화에 시원을 둔 우리 민족을 어찌보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어리석은 오산인 것이다.

1968년 1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것은 미국이 『서먼』호 사건과 조선전쟁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은 나포된 『푸에블로』호를 찾았다고 오만무례하게 날뛰는 미국의 코대를 단 한마디로 꺾어놓았다.

— 『푸에블로』호는 조선의 전리품 —

미국이 『사죄문』까지 쓰고 서도 가져가지 못한 무장간첩선, 오늘까지도 미해군에 정식 소속되어 있는 『푸에블로』호는 세상사람들에게 침략자들의 대조선야망을 폭로하는 우리 민족의 결사수호의지와의 첨예한 대결의 력사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첫줄기와 같은 대동강을 어지럽혔던 145년 전의 수치, 근 60년 전의 참패를 기억해 하며 혁사의 쓰디쓴 전철을 밟지 않으려거든 오늘까지도 변함없는 북침야망을 버려야 한다.

침략자들이 파거의 쓰디쓴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 땅에 불질한다면 대동강은 이제껏 보지 못한 무서운 경찰을 일으켜 그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어머니강, 대동강이 침략의 불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6. 15 공동선언 실천 민족 공동위원회 공동보도문

일제가 날강도적인 『한일 합병조약』을 날조하여 공포한지 101년이 되고 있다.

이른바 『한일 합병조약』은 일본 본체 국주의가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해 군사적 협약과 강압적인 방식으로 날조한 불법적인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국가적 범죄였다.

파거 일제가 『을사5조약』에 이어 『한일 합병조약』까지 날조함으로써 우리 겨레는 막국노의 척육속에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불행과 고통, 무참한 회생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나 일본은 때전이후 오늘까지도 치열되는 파거죄악에 대해 아무런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독도문제와 역사곡문제 등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 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6. 15 공동선언 실천 민족 공동위원회는 날로 로골화되는 일본의 파렴치한 재침략 동을 저지시키고 일본의 혁사적 범죄행위들을 청산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려는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6. 15 공동선언 실천 민족 공동위원회는 일제의 『한일 합병조약』 날조 101년이 되는 8월 29일 평양과 서울에서 북남공동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 6. 15 공동선언 실천 민족 공동위원회는 해내외 온 겨레의 침략과 폭력, 그리고 대동강물 속에 수장된 1만여 명의 전투자를 추모하는 『전투기념비』를 세울 것을 제기하고 『한국의 침략과 폭력』을 규탄한다.

3. 6. 15 공동선언 실천 민족 공동위원회는 해내외 온 겨레의 침략과 폭력, 그리고 대동강물 속에 수장된 1만여 명의 전투자를 추모하는 『전투기념비』를 세울 것을 제기하고 『한국의 침략과 폭력』을 규탄한다.

4. 6. 15 공동선언 실천 민족 공동위원회는 해내외 온 겨레의 침략과 폭력, 그리고 대동강물 속에 수장된 1만여 명의 전투자를 추모하는 『전투기념비』를 세울 것을 제기하고 『한국의 침략과 폭력』을 규탄한다.

5. 6. 15 공동선언 실천 민족 공동위원회는 해내외 온 겨레의 침략과 폭력, 그리고 대동강물 속에 수장된 1만여 명의 전투자를 추모하는 『전투기념비』를 세울 것을 제기하고 『한국의 침략과 폭력』을 규탄한다.

6. 6. 15 공동선언 실천 민족 공동위원회는 해내외 온 겨레의 침략과 폭력, 그리고 대동강물 속에 수장된 1만여 명의 전투자를 추모하는 『전투기념비』를 세울 것을 제기하고 『한국의 침략과 폭력』을 규탄한다.

7. 6. 15 공동선언 실천 민족 공동위원회는 해내외 온 겨레의 침략과 폭력, 그리고 대동강물 속에 수장된 1만여 명의 전투자를 추모하는 『전투기념비』를 세울 것을 제기하고 『한국의 침략과 폭력』을 규탄한다.

8. 6. 15 공동선언 실천 민족 공동위원회는 해내외 온 겨레의 침략과 폭력, 그리고 대동강물 속에 수장된 1만여 명의 전투자를 추모하는 『전투기념비』를 세울 것을 제기하고 『한국의 침략과 폭력』을 규탄한다.

9. 6. 15 공동선언 실천 민족 공동위원회는 해내외 온 겨레의 침략과 폭력, 그리고 대동강물 속에 수장된 1만여 명의 전투자를 추모하는 『전투기념비』를 세울 것을 제기하고 『한국의 침략과 폭력』을 규탄한다.

10. 6. 15 공동선언 실천 민족 공동위원회는 해내외 온 겨레의 침략과 폭력, 그리고 대동강물 속에 수장된 1만여 명의 전투자를 추모하는 『전투기념비』를 세울 것을 제기하고 『한국의 침략과 폭력』을 규탄한다.

민생파탄의 주범 현 『정권』을 심판하자

남조선의 각계총 군중 1만여 명 반 『정부』 투쟁 전개

남조선의 민주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과 21일 서울에서 당국의 반로동자정책을 규탄하며 정치적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전 지역의 노동자, 대학생, 언론인, 교원 등 각계총 군중 1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전 지역의 노동자, 대학생, 언론인, 교원 등 각계총 군중 1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사회계, 대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협의모임이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가지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회의에서 발언자들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앞

에 모인 투쟁 참가자들은 집회장소로 예정된 서울시청 앞광장으로 행진하면서 『민생파탄 정권심판』, 『정리하고 청탁하라!』, 『교원, 공무원 정직자유 보장하라!』,

『반값등록금 실현하여 교육 복지 쟁취하자!』고 웨쳤다.

물대포를 비롯한 폭압장비들을 갖춘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광장에 이른 그들

은 그곳에서 초불집회를 시작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금 당국이 교원들과 공무원들을 탄압하는 한편 반값등록금 공약행사를 거부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등 반민족적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고 단죄하였다.

특히 한진증권업 사례는 개별적 기업에 한한 문제가 아

는 그 곳에서 조선민족의 정의를 보장할 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집회에서는 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을 끝장네 대한 결의문이朗독되었다.

민심을 외면하는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그들의 투쟁은 다음날까지 계속되었다.

당국이 모든 조선인들에게 한정적 탄압을 즉시 종지하고 민중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60여일만에 막은 살림집골조공사를 끝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도로로 온 나라가 들끓는 속에 만수대지구 건설장에서 인민들이 기쁨을 안겨주는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인민군 홍봉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백두산 혁명장군의 본대로 드센 공격전을 벌려 폴조공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60여일 만에 부대가 막은 살림집골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대형 혁신을 창조하였다.

21일에 26층 살림집골조공사를 전부 끝낸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서로로 부동켜 안고 기쁨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조선인민군 홍봉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목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한 회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과 일본새, 만수대거리와 해방산기슭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불이 번져 나게 일떠세운 그 본래로 막은 대상공사에서 비상한 공격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부대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경제선동을 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전투장에 드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기상이 세차게 나타치게 하였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끊임없이 현장을 수시로 밟으며 확신식정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날마다 높이지는 건물벽체에 『단숨에』, 『구치라』, 『천년책임, 만년보증』, 『총공격전』, 『설멸전』이라는 전투적인 글날들을 내걸고 군인건설자들 모두가 위훈을 펼치도록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군인건설자들은 현대적으로 설계된 건설대상을 맡은 공지를 암고 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낼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기초작업으로부터 폴조공사를 다그치는 나날에 합리적인 공법을 편이어 받아들여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었다.

군인건설자들은 짜는듯한 무더위와 억수로 쓸어지는 비속에서도 건설을 중단하지 않고 매일 막은 공사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건설장으로 제일먼저 물조공사를 끝낸 26층 살림집골조공사를 끝낸 26층 살림집건

물은 세대당 리용면적이 대단히 큰 고급살림집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휘관들은 흐름식으로 진

행되는 폴조공사의 특성에 맞게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혼합물생산과 부족

되는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짜고들었다.

부대안의 시공단위 지휘관들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타치는 건설장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사회주의경쟁의 불길 속에 선군시대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다.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착하는 지휘관들의 뒤를 이어 군인건설자들은 하루작업계획을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대중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이들은 낫파 밭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여 2일 날것 한 사이에 살림집골조를 한 층씩 조립하였으며 폴조공사를 시작한지 60여일만에 마감총골조조립을 성과적으로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막은 전물을 폴조공사를 다그치는 동시에 살림집내부미장작업에도 힘을 넣어 수십세대분에 달하는 살림집들의 벽체

미장도 손색없이 다그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하였다.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지금 고종살림집골조

공사를 남먼저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마감공사에서도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완공의 날을 앞당길 일념을 안고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본사기자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대동강도 하경기 진행

청년절기념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대동강도 하경기가 23일에 진행되었다.

경기에는 시내 중학교, 소학교들에서 선발된 9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광장과 잇닿은 대동강유보도에 대기하고 있던 선수들은 경기 시작호가 울리자 주체사상탑이 바라보이는

맞은편 강기슭을 향해 자신

만만하게 헤엄쳐나갔다.

수영을 대중화할때 대한

조선로동당의 높은 뜻을 받

들고 평시에 수영기술을 꾸

준히 헌마애온 그들은 규모

있게 대형을 맞추면서 힘차

게 전진하였다.

높은 단결력과 완강한 인

내력, 의지로 푸른 물을 헤

가르며 나아가는 경기참가자들의 모습은 볼수록 장하였다.

해양국의 새 세대, 강파바다의 정복자들로 튼튼히 준비할 일념안고 기세좋게 헤엄치는 선수들에게 학생소년들과 시민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경기가 끝난 다음 우수한 단체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경기에서 앞서 평양남신소학교, 평양상홍소학교 학생들의 대동강도하경 출연이 있었다.

본사기자

— 『뒤구멍으로 호박씨 까다』

곁으로는 얌전한척 하면서 뒤에서 은밀히 온갖 짓을 다한다는 뜻이다.

호박씨는 손으로 까기도 어렵다. 하물며 뒤구멍으로 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 『풀씨년스럽다』

날씨나 분위기가 스산하고 쓸쓸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올씨년은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긴 1905년(을사년)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막은 나라를 빼온 민족의 슬픔과 울분이 치고넘친을사년의 환경을 표현하는 과정에 변형된 말이다.

— 『거덜이 난다』

하려던 일이 여지없이 결단나거나 재산 같은 것을 망탕 써서 다 없앤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말이다. 거덜은 리조시키 왕실에서 가마나 말을 관리하던

시종이었다.

거울은 비록 신분이 낮았지만 지체높은 고판매작들을 직접 모시다니나 우월감에 사로잡혀 물을 흔들며 우쭐거렸다. 재산이나 살림도 흔들리면 허물어진다는 의미에서 흔히 『거덜이 난다』라고 표현한다.

— 『링咆보다』

바라던 일이 안되어 기대에 어긋났거나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랑파는 전설에 나오는 동물이다. 랑은 뒤다리가 없고 패는 앞다리가 없으므로 서로 공생해야 살수 있으며 마음이 맞지 않으면 꿈짝없이 굽어죽기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도모하였을 때 꾀이거나 실폐로 돌아가는 경우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랑파보기 십상인데…』라는 표현을 쓴다.

본사기자

어버이 장군님의 력사적인 도시에 서비스 및 원동지역을 비롯한 외국방문소식은 온 조국땅을 뒤돌며 새 세대 청년들에게 키를 안겨 주어 막은 일에서 더 성수가 나게 하고 있다.

이국의 광활한 대지에 새겨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창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송고한 그리움의 세계에서 애국충정의 열의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는 청년들 속에는 지난해에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일하는 광수련도 있다.

통일에 국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친 조국통일상수자인 할아버지처럼 조국을 받들어 갈 남다른 결의에 넘쳐

있는 그는 머나먼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실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현장에서

자랑하는 마음이 어려웠다.

22살 꽃나이 저녀의 마음속에는 얼마전에 일터에 서 혁신을 일으키면서 사회주의 건설장들을 지원한 자가에게 사랑의 감사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애국의 한마음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8월의 무더위속에 머나먼 외국방문길을 이어가시는 아버지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밤이나 낮이나 이 가슴에 뜨겁게 어려옵니다. 그 위대한 혁신의 장정에 이 마음 따라세우며 더 많은 일을 하렵니다.』

본사기자 박단희

소중히 괴우는 마음

걸리고 있는 기술혁신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돌격전을 벌리고 있다. 이번에 청년

철을 맞으며 진행되는 전국 청소년교양자료 및 수단, 청년학생과학기술전시회에 내놓으려고 준비한 대상



막을 수 없는 조선홈페지열람열기

로 씨 애공산주의로 동자당 — 혁명적 공산주의자당이 인터넷홈페지에 『인터넷상에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홈페이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조선당국은 조선의 자료들이 남조선에서 인기를 끌 수 없다고 간주하였으나 사태는 반대로 전환되었다. 조선홈페지들이 화면음악특화편집물들에 대한 접속 및 시

청률은 기록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터넷 『독자생활전』에서 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남조선당국은 조선홈페지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시도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조선의 자료들이 남조선에서 인기를 끌 수 없다고 간주하였으나 사태는 반대로 전환되었다. 조선홈페지들과 화면음악특화편집물들에 대한 접속 및 시

고도 불리운다.

⑧ 빨간색웃자립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여름철에 흰옷을 입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빨간색웃자립이 더 좋다.

그것은 보임빛과장이 제일 긴 빨간색이 태양빛속의 자외선을 많은량 흡수하여 피부손상을 막아주고 피부의 로화 및 암변이를 방지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⑨ 부채
건강측면에서 볼 때 제일 좋은 『랭동설비』는 부채이다.

부채를 흔드는 것은 일종의 운동으로서 팔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된다.

이와 함께 부채로 염지에는 바람은 인체에 제일 적합한 바람이다.

⑩ 규칙적인 기상 및 취침시간
여름철에는 늦게 잠자리에 들고 일찌기 일어나는것이 리상적이다.

여름철에 제일 적합한 취침시간은 22시 30분~23시 30분사이, 기상시간은 5시 30분~6시 30분사이이다.

침시간간전이나 식사후에 족잠을 잡으로써 부족되는 잠을 보충해야 한다.

본사기자

여름철 건강관리의 10대 요소

⑥ 비타민E

여름철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 가운데 비타민E를 첫번째로 꼽는다.

비타민E는 길은, 밀가루빵, 가두배추, 꽃가두배추, 참깨, 참깨기름, 해바라기씨, 유제씨기름, 우유제품등에 높이 들어있다.

차잎에는 칼리움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⑦ 수영

여름철에 제일 좋은 운동은 수영이다.

수영은 손과 발, 허리, 배를 단련시킬뿐아니라 심장, 뇌, 폐, 간 등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혈관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하여 『혈관체조』라

본사기자

체 담배를 피워물고 창밖에 눈길을 주다니니 너손님의 이상스러운 눈초리를 감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의 동생이란 말인가?!) 그는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을 겨우 움직였다.

『화가선생에게는 형제가… 몇이나 되는가요?』

『예, 여섯남매입니다. 우

찬 얼음덩이가 목에 꽂아로질리는듯 했다.

(귀공녀?… 이 딸이 어떻게 벌레처럼 천대받으며 모욕의 구정물속에 살아왔는지를 그 어머니가 안다면…)

숨이 껉 막힐듯 한 실분의 걱정속에 그는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중충한 버드나무숲속에 이따금씩 서있는 복숭아모양의 장소조명등이 등그런 광망을 그리고 있다.

그는 아지를 세자에게 키울려는 버드나무에 쓰러지듯 몸을 기대고 꺼칠꺼칠한 줄기를 아로도록 손에 취였다.

그는 업히여우는 아의 모습이 영철이의 모습으로 바뀌어 안겨온다.

별안간 몸서리를 치며 나무를 떠밀쳐버린 그는 강기슭을 따라 추연히 걸음을 옮겼다.

(그래, 나에게는 어머니가 없었다. 날 버린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 엄마없는 교아의 설음이란 얼마나… 얼마나 기막힌것이었단가…)

짜디짠 눈물이 뺨을 적시고 입귀로 스